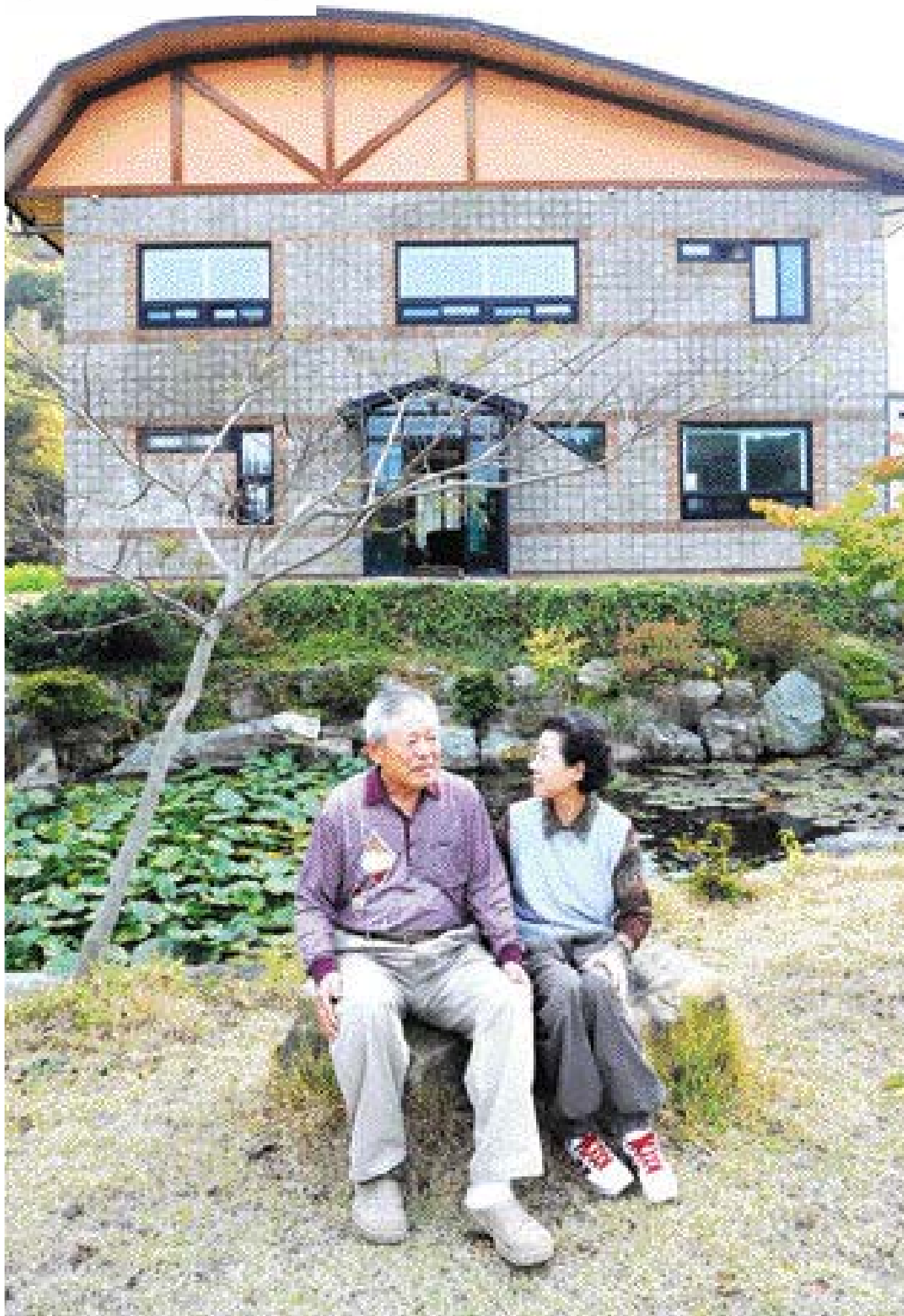


식당 사들여 개조 ... 2층에 음악 감상실 꾸몄죠



홍영우(왼쪽)·고영희씨 부부가 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홍씨 부부는 전원생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대화가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담양 남면 용연마을 홍영우·고영희씨 부부

소쇄원으로 유명한 담양군 남면, 면소재지를 지나 고개 하나를 넘으면 오른쪽으로 금호 화순리조트 가는길이 나온다. 화순리조트 가는 길을 따라 자동차로 3분쯤 달리면 오른쪽에 '용연문예마을'이란 팻말이 반긴다.

행정구역상 담양군 남면 만월리 용연마을. 이 마을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홍영우(66)·고영희(여·62)씨 부부의 설명대로 용연문예마을 팻말을 따라 들어가자 무등산 자락 골짜기에 마을이 길게 형성돼 있고 초입에 2층 양옥집이 눈에 띄었다.

홍씨 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살고 있는 집이다. 측백나무와 야생화가 도열한 입구를 지나자 수련이 가득한 조그만 연못뒤로 집이 보였다. 여느 전원주택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 물었다니 식당을 개조해 만들었다.

식당으로 쓰이던 1층에 거실과 부엌, 안방을 배치하고 살림집이던 2층을 홍씨의 취향을 살려 음악감상실로 꾸몄다. 특히 음악감상실은 1층에서 이어지는 계단 입구부터 유리로 완벽한 방음장치를 해 방해받지 않고 취미생활을 즐길수 있게 했다.

광주가 고향인 홍씨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고교 동창인 소설가 문순태씨의 권유 때문이었다. 원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 광고산 밑 타운하우스에서 살았지만 문씨의 권유로 이곳에 드나들면서 깨끗한 자연과 고향의 따뜻한 정에 이끌리게 됐다.

"지난해 여름 이 집 뜰에서 놀게 됐는데 모기 한마리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근처에 있는 측백나무 숲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씨는 자연 방충제인 측백나무에 반해 이곳에 정착했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수구초심'이랄까, 나이가 들다보니 자연이 고향쪽이 끌리더라고 했다.

광주에서 23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서울로 이사가 20년간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다 IMF때 부도를 맞기도 했지만 회사를 정상화 시킨



2층 음악감상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홍씨 부부.

고교 동창 소설가 문순태씨 권유로 작년 정착

입구엔 측백나무·야생화 ... 연못엔 수련 가득

물·공기 좋은 곳 사니 요통도 말끔히 사라져

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홍씨는 타운하우스에서 살 때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아파트와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이곳에서는 마을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게 좋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어울리는 그만의 방식

은 먼저 다가가시다. 마을 회의때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민들의 요청으로 집 근처 맹지(盲地·길이 없는 땅)를 산뒤 임대해주고 무료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준 것은 그런 방식의 하나다.

전원생활을 통해 건강도 얻었다. 5년동안 허리를 굽지 못할 정도의 원인모를 요통에 시달렸던 홍씨는 이곳에 온 뒤로 거의 나았고, 초기 위암수술을 받았던 고씨도 건강을 되찾아 요즘에는 인근 화순군 이서면으로 거문고를 배우러 다닌다. "아무래도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씨 부부는 전원생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로 부부간의 대화를 꼽았다. 도시에서는 생활에 치여 살다보니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의부로부터 단절돼 돌만의 시간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지고 결과도 좋게 나온다고 하며 환하게 웃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원래 이름은 '생오지' ... 문순태씨 창작 공간 '문학의 집' 있어

■ 담양 용연마을은

용연마을은 '생오지(生吾地)'로도 불리고 있다. 생오지는 '진짜 골짜기'라는 의미로 이 마을의 원래 이름이었다.

소설가 문순태(66· 전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씨가 자신의 시 '생오지 가는 길'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일반에게 알려진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문씨는 용연마을의 아랫마을인 구산리가 고향이지만 2006년 8월 이곳에 정착해 '문학의 집'이란 창작공간을 마련해 살고 있다. 현재 마을주민은 15가구에 40여명으로 홍씨처럼 전원주택을 지어 생활하는 집은 4가구이고 나머지는 원주민들이다.

용연마을은 200여m 거리를 두고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간에 다랭이 논 밭이 마을을 이어주고 있다. 문씨의 문학의 집은 윗마을 초입에 자리잡고 있다. 해마다 문화과 국



문순태씨의 창작 공간이자 문화 난장이 열리는 '문학의 집'

악이 어우러진 문화난장을 열어 문화 예술인은 물론 마을 사람 들까지 함께 즐기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무안 - 향주(황산, 구화산) 직항 전세기

기쁨의 여행,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참여 명산 황산

황산-무안 항공 직항 노선 신설(10월 25일) / 무안-향주 항공 직항 노선 신설(11월 15일)

3박 4일 W 629,000~ / 4박 5일 W 699,000~

● 무안-향주 항공 직항 노선 신설(10월 25일)
 ● 3박 4일 여행 패키지 구성
 ● 1박 2일 여행 패키지 구성
 ● 1박 1일 여행 패키지 구성
 ● 1박 0일 여행 패키지 구성
 ● 1박 0일 여행 패키지 구성
 ● 1박 0일 여행 패키지 구성
 ● 1박 0일 여행 패키지 구성

황산(정지계, 원지계) 전착석매진!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대면 차대리 만능도움 서비스
 ● 광주 MBC 문화탐방
 ● 방문입니다 www.kbc.com

다들 네가봐 강박증에 "광주MBC 문화탐방"을 시청시요, 방송에서 소개되어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광주 MBC 문화탐방 광주/전남 최 유명여행사 ☎ 문의 062-226-6070